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언더웨어 페티시(Underwear Fetish)

이 의 정* · 양 숙 희

*서울대학 의상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f Fetishism in Fashion -Underwear Fetish-

Eui Jung Lee* · Sook Hi Yang

*Dept. of Fashion Design and Textiles, Seoul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1998. 11. 10 접수)

Abstract

Fetishism originated from the cultural and social products, is related to many aspects of arts and sciences: postmodernism, psychoanalysis and subculture of pornography. Fetishism was reflected on fashion and now has been one of the hot issues in high fashion. Waist was one of the erotic zone of body both in man and woman and sadomasochistic fetishism was originated from physical damages on this zone. The aim of this experiment was to study what kind of fetishism was revealed on fashion, especially in women and men's underwear fetish.

In conclusion, fetishism which has a long history and now been a one of popular high fashions in Western society is still unfamiliar to Korean fashion society. Researches of fetishism including deviant sex was still restricted in Korean society due to "Confucianism" which has been a ruling philosophies in Korean culture. However, the sex moral in modern Korean society is now being generous year by year and sex is no more a taboo to talk with. Fetish fashion will increase its market share in near future in Korea and further studies of fetishism is needed.

Key words: Fetishism, Underwear Fetish, Underpants, Brassiere, Stockings, Men's Underwear :
페티시즘, 언더웨어 페티시, 언더팬츠, 브래지어, 스타킹, 남성 언더웨어

I. 서 론

페티시즘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역사, 철학, 윤리학, 미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종교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19세기

말 억압적인 빅토리아 성도덕과 세기말 풍조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 등에 자극받아 급속하게 대중문화 속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패션은 오랫동안 페티시즘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 페티시즘은 하이패션의 중심테마로서 종종 등장하였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하위문화에서 하이패션의 주류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페티시즘 문화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일탈된 성과 관련된 연구 자체가 터부시되어 왔다. 그러나, 페티시즘과 페티시 패션은 현대 서구 패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간의 성개념을 도착의 범주로까지 확장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페티시즘이 어떠한 이유와 양상으로 인간의 섹슈어리티와 부합되어 왔는가를 여성과 남성의 언더웨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구의 페티시즘 문화와 페티시 패션을 이해하고, 복식문화에 페티시 패션이 접목되고 유행되는 양상을 진단해 보며, 나아가 페티시 패션을 패션의 하위문화가 아닌 '제3의 패션'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본 론

1. 여성의 언더웨어

1) 언더웨어 페티시의 역사적 배경

중세 후기에 이르러 귀족사회에서 주된 의상과의 구분으로서 언더웨어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것은 땀이나 신체 오염물질로부터 비싼 옷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이 큰 동기가 되었다. 아울러 린넨의 언더웨어는 모직물의 마찰에 의한 가려움을 방지하고 보온을 위한 덧층을 제공하였다¹⁾. 언더웨어는 위생과 목욕문화, 그리고 나체에 대한 인식과 많은 관련을 갖는다. 중세까지 번성했던 공중위생과 목욕문화는 종교개혁 무렵에 이르자 대부분의 목욕탕이 매독을 확산시키는 매춘숙으로 간주되어 폐쇄당하고 말았다. 18세기 유럽에서 전신 목욕은 희망사항일 뿐, 수도가 없는 집에서 목욕은 간단하지 않은 하나의 큰 행사였다. 의복은 물세탁하거나 드라이크리닝하기 보다는 거풍(擧風)하였다. 따라서 몸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유럽의 궁정에서는 향수를 선호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악취와 자신들의 악취를 잊고자 했던 것이다. 향수는 최음제로도 이용되어 16세기 초 여성들은 가슴사이에 향낭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오늘날 브래지어 중앙에 장미꽃 자수로 장식하는 관습으로 남아있다. 또 향수

를 주입한 왁스콘(wax cone)이 정교한 머리장식에 삽입되기도 하였다²⁾. 나체로 자는 습관은 1500년 무렵까지 존재하였으나 그후엔 신혼 첫날밤을 제외하고는 사라져버렸다³⁾. 따라서 언더웨어는 그후 잠옷(nightwear)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가장 소중한 혼수용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17세기에는 언더웨어를 잊고 입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되었고 루이 14세는 소매가 달린 언더웨어를 껴입었다고 전해진다.

현대 유럽초기의 발전은 언더웨어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여성에게 준 입무 즉, 구애에서 남자에 대해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남자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입무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언더웨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언더웨어는 16세기 일부 귀족계층에서 채택되었고 18세기 성적인 면과 봉제상의 측면에서 의상의 초점이 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에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1890년에서 1910년 사이는 "언더웨어의 절정기(the great epoch of underwear)"였다⁴⁾.

에밀 졸라(Emile Zola)의 표현에 따르면 파리백화점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란제리들은 "마치 많은 아름다운 소녀들의 옷을 입지 않은 맨몸에 새틴조각을 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⁵⁾. 또다른 작가 옥타브 유잔느(Octave Uzanne)는 여성의 란제리를 한 송이 꽃에 비유하였다⁶⁾. 영국의 패션작가 에릭 프리트차드(Eric Pritchard)는 결혼에 실패한 여성은 남편을 유혹하는 란제리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아내가 신비스러움도 요염함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남편은 '다른 페티코트'(다른 여자)를 찾아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⁷⁾. 한편, 프랑스 트라미르 백작부인(Comtesse de Tramar)에 의하면 옷을 벗는 행위는 '성적 욕망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아내는 에로틱한 언더웨어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더웨어는 베일에 싸인 비밀영역이며 일종의 마력을 불어 넣어준다."⁸⁾ 인위적으로 신체를 감추는 것, 특히 성기 부분을 감춤으로써 언더웨어는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노출의 스틸을 제공한다. 또한 언더웨어는

육체를 감춤으로써 성행위의 전조인 옷을 벗는 행위를 암시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양한 성적 환상(sex fantasies)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페티시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언더웨어를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페티시할까? 인체의 성적 매력은 누드일 때보다도 언더웨어와 결부될 때 더욱 관능적이며 짜릿한 흥분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서 매그너스 허시펠드(Magnus Hirshfeld)는 1000명의 남자들 중 350명은 옷을 벗은 여성이, 400명은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여성이, 그리고 250명은 완전히 옷을 입은 여성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연구를 했다⁹⁾.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용 언더웨어의 프릴(frill)이나 프릴로 된 의상에 대하여 묘한 흥분을 느낀다."¹⁰⁾고 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언더웨어의 촉감에서 오는 심리적 호소력에 유혹되며, 특히 매춘부들은 라제리의 착용에서 오는 심리적, 물리적 효과를 강조한다. 또 어느 복장도착자에 의하면, "실크와 같이 매우 얇고 섬세한 언더웨어는 훌륭한 매춘부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다¹¹⁾.

2) 언더팬츠 (underpants)와 페티시즘

언더팬츠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특권계층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베니스의 매춘부들도 언더팬츠를 착용했었다. 그러나 당시 서구에 만연해 있던 바지는 남성의 이미지와 결부된다는 의식때문에 널리 유행하지 못했다. 결국 팬츠는 논의의 표적이 되었으며 근세의 풍자문학가나 도덕가,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팬츠를 포마드나 연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온 마성(魔性)의 신제품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여튼 언더팬츠를 통해서 귀족들은 언더웨어를 착용하지 않았던 서민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18세기의 성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기묘한 논쟁이 일었는데 어떤 이는 언더팬츠 착용의 보급을 권장함으로써 아가씨들을 '더욱 씩씩하고 자유스럽게' 만들고자 했다. 또다른 예로서, 브라운 슈바이크¹²⁾의 명석한 파우스트(Faust)라는 학자는 혼기에 이를 때까지 아무 것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들의 능률함

과 절개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압박하지 않는 복장 때문이라고 칭송하면서 성기를 의복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액분비에 해가 되며 자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매우 중대한 논의는 1789년 당시 독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각파의 의견을 분열시켰으며 이것은 그후 지배계급이 채용한 언더웨어 모드와 결부된다. 루이 15세 치하의 프랑스에서 여자의 언더팬츠는 귀족이 아니고서는 '건방진' 행위로 여겨졌다. 어쨌든, 16세기부터 19세기초반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슈미즈(chemise) 안은 맨살이었다 (사진 1).



[사진 1] Robert Damachy(1883)

183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은 판타롱(pantalon)을 입거나 또는 한다리를 먼저 당기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당긴데서 유래된 드로어즈(drawers)같은 언더팬츠를 입기 시작했다. 여성복에서 두 갈래진 어떤 형태라도 남성들에게는 불만이 되었으나 언더팬츠는 예절과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로 옹호되기 시작했다. 1852년 영국의 어느 의사는 드로어즈가 동풍(東風)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천했다¹³⁾. 1870년 후반까지 일부 프랑스 작가들은 여전히 '바지(Le Pantalon)는 남성들만의 전용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품위있는 여성들에게는 입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¹⁴⁾. 그러나 그와같은 부당한 잇슈가 퇴색되었을 때 언더팬츠는 빠른 속도로 유행되었으며 점차로 실크와 같은 우아한 소재로 제작되었다. “매우 가볍고 짧으며 물결처럼 드리워진 레이스와 리본의 후릴, 이러한 판타롱은 벗었을 때보다도 연인을 더욱 애타게 만든다.”라고 1887년 프랑스 소설가가 썼다¹⁵⁾. 일부 남성들은 언더웨어를 입음으로써 여성들의 아랫도리를 힐끗 훑쳐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불평을 했지만 언더웨어 자체를 목적으로한 새로운 관음주의가 발생했다. 즉, 캉강(can can)과 큐바뜨(cubat)같이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춤의 매력은 댄서들의 후릴진 언더웨어와 패티코트의 노출에서 연유된 것이다. 선정적인 캉강댄스는 원래 프랑스에서 세탁부나 하녀가 발을 높이 차올릴 때 스타킹, 가터, 페티코트, 드로어즈 등이 보였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들의 스타킹 윗쪽의 맨살을 감질나게 보는 것은 스커트가 바닥까지 내려오고 겹겹이 언더웨어를 입었던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활력과 흥분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언더팬츠는 오랫동안 ‘半남성적인(demi-masculine)’ 옷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매춘부, 댄서, 소녀들에게 크로스드레싱의 에로틱한 의미를 갖고 착용되었을 뿐 일반인에게는 거부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신분높은 일부 여성들이 ‘정숙과 보은’ 그리고 ‘위생’ 상의 이유로 인하여 언더팬츠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하향전파되기 시작했다. 복장도착은 언더웨어 페티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남성용 팬티와 언더웨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 매력을 못느끼는데 반해서 여성용 ‘팬티’의 성적 매력에 대해서는 많은 집착을 보이곤 한다. 엄밀히 말해서 팬티는 원래 남성복이었으므로 우리들 대부분이 한벌의 팬티를 처음 입음으로써 그자체가 복장도착을 시작하는 셈이다¹⁶⁾. 또한 임상연구에 의하면 크로스드레서들은 흔히 완전한 여성의 의상을 택하기에 앞서 속옷과 구두같은 품목에서 도착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언더웨어 페티시스트는 벨 에포크(Belle Epoch)시대와 같이 화려하고 주름장식 있는 언더웨어 스타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에

다이아나 슬립회사(Dianna Slip Company)는 ‘Pantalon 1905’ 나 ‘주름장식(Le Frou-Frou)’와 같이 몇가지 역사적인 언더웨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다양한 페티시한 속옷류를 생산 판매하였다¹⁷⁾. 예를 들어 검정 레이스 바탕에 붉은 하트형의 새틴을 아플리케하고 그 위에 토끼털이나 인조모피로 장식된 페티시한 언더팬츠도 있었다(사진 2). 1960년대 쓰여



[사진 2] Diana Slip Company, 1935.

진 복장도착자의 이야기인 『언더커버 뉴스(Undercover News)』에는 다양한 언더웨어들이 묘사되어 있다. 선정적인 짧은 가죽 팬티는 작은 자물쇠와 열쇠로 신체를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 또다른 반투명 라텍스의 원피스 슈미즈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몸에 밀착된다. 여기에서 언더웨어는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반대로 신체 자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¹⁸⁾. 그런가 하면, 비키니 스타일의 ‘캔디 팬티(candy panty)’는 1970년대에 잠깐동안 유행했는데 이것은 FDA에서 공인한 인체에 무해한 양만큼의 핫초콜렛이나 바나나 스플릿(split)과 산딸기향을 첨가한 팬티였다. 1913년에 출간된 독일의 심리학 책은 ‘팬티 냄새맡기’에 많은 장(章)을 할애하고 있다. 또, 1950년과 1960년대의 ‘칼리지 팬티 레이드(college panty raid)’는 미국의 대학가에서 유

행했던 팬티 도둑사건이며 ‘팬티 레이드 클럽(panty raid club)’은 언더웨어 페티시즘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된 이 클럽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언더웨어들을 쟁취하고 수집했었다(사진 3). 클



[사진 3] Panty raid club. <Steele (1996)>

럽의 회원들은 ‘사용한 팬티(used panty)’에 어떤 마력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획득한 여성의 팬티는 전리품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크라프트 에빙(Krafft-Ebing)은 언더웨어 페티시즘에 대한 임상적 발표를 하였다. 45세의 구두 수선공은 여성의 언더웨어를 훔치다 잡혔는데 경찰은 그의 집에서 300개 이상의 패티코트, 슈미즈, 언더팬츠 등을 찾아내었다¹⁹⁾. 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페티시스트들은 이성과의 성경험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성의 언더웨어에 대하여 놀랄만한 성적 흥분을 나타내며 단지 여성의 체취가 나는 사용한 팬티만으로도 흥분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페티시스트들의 ‘하렘 숭배(harem-cult)’라고 하였다²⁰⁾. 페티시즘은 흔히 서구 세계만의 도착행위라고 믿어져왔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은 비록 나체에 대하여 유대교-기독교(Judeo-Christian)적인 ‘금욕주의(Puritanism)’는 갖고 있지만 이것이 육체금기(body taboo)가 없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의 음모에 대한 문학적인 상세한 묘사는 범으로 규제하고 있다. 팬티는 서구에서 수입된 패션으로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일본에서 대중화되었다. 1920년대에 나가이 카프(Nagai Kafu)의 no-pan kisa(no-panty cafés)』같은 작품에서 팬티 페티시즘이 표현되었다. 그후 일본의 ‘팬티 관음주의’는 크게 유행하여 페티시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팬티가 에로틱한 흥분의 원천으로서 성기를 대신하는 경우 그것은 여성의 성기 또는 성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증(phobia)’ 때문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성기가 팬티에 의해 감춰지게 되면 애타는 애매모호함과 호기심이 생기는데 예로써 팬티 속에 페니스를 감추고 있는 듯한 에릭 크롤(Eric Kroll)의 ‘남근을 가진 여성(phallic woman)’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언더웨어는 또한 촉각과 후각적 자극제이다. 언더웨어의 감촉은 흔히 에로티시즘의 원천일 뿐 아니라 ‘직물 페티시즘(fabric fetishism)’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사용한 팬티에 흥미를 갖는 페티시즘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페티시스트들은 대부분의 정상 남녀들이 즐기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성을 즐기지 않고 독특한 후각적 자극이나 호소력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페티시 대상물은 크게 ‘후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으로 나뉜다. 냄새 페티시(smell fetishes)는 욕실의 기능(bathroom functions)과 관련된 강박관념에 의한 것이며, 이는 성의 미발달된(infantile)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분뇨애착증(coprophilia)은 ‘엉덩이 페티시즘(buttock fetishism)’과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팬티 페티시즘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흔한 현상으로서 그 이유는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떤 후각적 자극에 대하여 성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팬티에 대한 에로틱한 중요성은 전후 관계 있는 요소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하며, 따라서 확대해서 생각하면 언더팬츠를 향한 관음주의는 ‘정상’ 영역으로 간주된 남성들의 페티시한 성적 특성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동성애(homosexuals) 또한 남성의 언더팬츠를 페

티시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때 팬티는 상대 남성의 페니스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성연구가에 의하면 동성애의 남성들은 종종 성의 전리품으로서 팬티를 모으기도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스톨러(Robert Stoller)에 의하면 복장도착자들은 “살아있는 여성과의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험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피부 대신 무생물인 의복으로 대처시키는 경향이 있다.”²² 라고 한다. 즉, 가슴 대신에 브래지어에, 비단 같은 피부 대신에 ‘순수한 실크(pure silk)’에 그리고 처녀 대신에 ‘숫처녀의 새하얀’ 팬티에 흥미의 초점을 맞춘다. 이들이 팬티를 생식기와 동일시할 경우 종종 여성 언더팬티의 장식은 굵글굵글한 여성의 음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결국 ‘부드러운(soft)’, ‘홍조를 띤(blushing)’, ‘순결한(pure)’ 그리고 ‘몸에 꼭끼는(skin-tight)’ 따위의 언더웨어와 관련된 모든 묘사는 여성성(femminity)이라는 육체적 또는 감성적인 측면과 상징적으로 부합된다.

2. 남성의 언더웨어

1) 남성 언더웨어의 역사

약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매우 화려한 옷차림을 했었다. 그러나 그후 점차로 남성의 의상 특히 남성의 언더웨어는 무색의 단순한 스타일을 고수해 오고 있다. 여성의 언더웨어는 주로 신체보정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종종 골조의 만곡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레이스, 러플, 수공예 그리고 얇은 재질로써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실용성보다는 섹슈얼리티를 강조하였다. 반면, 남성의 언더웨어는 언제나 기능성을 우선시 하여왔고 신체의 자연스런 외관을 왜곡시키지 않고 따랐으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가장 오래된 남성용 언더웨어의 예는 로인클로스(loincloth)로서 알프스산에서 언 채로 발견된 5300년전 동굴시대의 남성이 입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아벨 위고(Abel Hugo)에 의하면 1835년까지 프랑스 남서부 란드(Landes)에서는 양치기들이 그것을 착용했다고 한다. 투트(Tut)왕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 50년간 그에 관해 연구한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왕의 로인클로스는 이등변삼각형 같은 모양으로서 끈이 달린

긴 린넨조각”이었다. 이것을 힙둘레에 묶고, 뒤에서 길이 방향으로 천을 늘어뜨려 다리 사이로 앞으로 보냈고, 밖에서 묶은 끈은 안으로 접어넣어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인 죄수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언더웨어를 입었으며, 중국의 전통적인 남성 언더웨어는 로인클로스를 재단, 봉제한 형태로서 두 개의 교차시킨 천조각을 앞에서 묶은 기저귀 모양의 브리프(briefs)이다. 보수적인 로마의 남성들은 특별한 언더튜닉(under tunic)을 입었는데 남성의 언더튜닉은 대개 여성들의 것보다 짧아서 활동적인 남성들의 생활에 적합하였다. 여성들이 바닥까지 끌리는 긴 스커트속에 다리를 계속 숨기고 있는 동안, 남성들은 그들의 튜닉길이를 짧게 하고 브리치스로써 다리의 윤곽선을 도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사진 4). 12세기의 철갑옷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패



[사진 4] Golden Triangle Silhouette.

드를 댄 린넨의 라이닝은 딱딱한 쇠붙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며, 패드를 댄 로인클로스는 기수(騎手)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옷들은 과거 남성들이 주로 입었던 언더웨어의 원형(原形)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스타킹(stockings)을 신었는데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초기의 호즈(hose)는 무릎길이였으나 12세기에 와서는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까지 브리치스가 입혀졌다. 이후에 남성용 호즈는 종종 무릎아래에서 리본이나 테잎으로 묶여졌는데 이것은 가터(garter)

장식의 전조(前兆)로서 한쪽은 브리치스에 부착되어졌고 다음엔 두블레에 묶여졌다. 초기의 스타킹은 의복과 분리된 형태로서 린넨이나 울같은 직물을 다리모양을 따라 재단해서 만들다가 엘리자베스 1세 때 편성물(編成物)로 된 것이 등장하였다. 편성된 호즈의 출현은 피트성(fit)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스타킹을 언급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코드피스(codpiece)' [사진 5]인데 이것은 남성의 성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심을 대거나 속을 채워서 돌출되게 강조한 것으로서 16세기에 이르러 드라마틱하게 과장되었다. 이러한 과장된 코드피스는 여성들의 돈지갑처럼 동전과 사탕을 담아두는 곳으로 주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16세기의 코드피스는 시선을 끌고자 보석 등의 장식으로 매우 무례한 모습을 했을 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룩하거나 착 달라붙는 짧은 바지에 불거져 나온 코드피스 그리고 몸에 꼭끼는 상의로써 여성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섹스어필을 천박하게 강조하였다. 코드피스를 계승한 '작스트랩(jockstrap)'²⁰⁾을 현재까지도 남성 운동선수들과 무용수들이 생식기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고있다. 예를 들어, 발레의 세계에서는 보통 여성용 생리대로 속을 채운 작스트랩이 무용수들의 생식기의 보호 뿐 아니라 남성성의 심벌로서도 이용되고 있다(사진 5). 16세기 남성의 언더웨어는 단지 린



[사진 5] J. P. Gaultier의 Skin-tight 바지와 성기보호대 (Jock strap). <McDowell (1992)>

넨 뿐이었기 때문에 언더웨어를 '린넨'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아마도 물세탁할 수 있는 유일한 의복소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슈미즈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길이였고 그 위에 여러 겹의 겹옷을 입었다. 판타롱(pantaloons)과 가터는 스타킹 위에 입었고 슈미즈의 소매와 윗부분은 밖으로 노출시켰다. 남성들은 이상적이고 '멋진 다리(fine legs)'를 위해서 종아리에 패드를 덧대어 살찐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과거 수세기 동안 특히 군대에서 소수 군인들이 깨끗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콜셋을 입어왔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는 동안에도 남성 언더웨어의 발전은 여전히 미미하였다. 근래의 것으로서 1908년 시어즈, 로우백(Sears, Roebuck)²¹⁾의 카탈로 그는 "직립자세에 효과적인 남성용 '밀리터리 콜셋'이 매우 호평받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남녀의 언더웨어는 의학적, 위생적, 사회적 측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1830년대 남성들은 프란넬로 만든 언더드로어즈(underdrawers)를 입었고,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헬멧과 크루넥(crewneck) 스웨터 그리고 발부분이 달린 긴 드로어즈의 '쓰리피스 울니트 잠옷'을 입었다(사진 6). 이것은 독일의 예거 박사(Dr. Gustav



[그림 6] Union Underwear, Holmes & Union

Jaeger)의 주장으로서 이전에는 모직에 해충이 꼬인다고 생각되어 꺼렸으나 점차로 개인위생이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또, 쌀쌀한 날씨의 보스턴 출신 존 엘 설리반(John L. Sullivan)은 울로 된 긴 드로어즈를 권투복으로 입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는 '롱존스(long johns)'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옷은 베스트와 발목길이의 드로어즈로 분리된 것 또는 올인원 형태의 '유니온 수트(union suits)²⁴⁾'로 만들어져 이용되었다(사진 7). 20세기에



[사진 7] "Long Johns", 권투선수들이 주로 착용했던 Union Suits. <Benson & Esten (1996)>

등장한 언더쇼츠(undershorts)에는 '박서(boxer)'와 '자키(jockey)'가 있으며 그들 명칭은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브리프(briefs)는 신축성 직물로 만들어진 매우 짧은 언더웨어로서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점차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짧은 형태가 되었다(사진 8). 오늘날의 언더웨어에 관한 기사에서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캘빈클라인의 대담하고 도발적인 광고는 1980년대에 발표된 이후 지금은 세계도처에 편재해 있다. 여성용 언더웨어가 섹시한 측면을 가지고 있



[사진 8] 시간을 초월한 브리프.
(좌) 순교자 ST. Sebastian, 15세기.
(우) Ischia, Italy, 1955. <Benson & Esten(1996)>

는 것과는 달리 남성용 언더웨어는 청결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다. 상투적인 표현으로써 학생들은 박서쇼츠를 선택하고, 노동자 계층의 남성은 자키쇼츠를 입으며 또 브리프는 게이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고정관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언더웨어에서도 크로스드레스 경향이 점차로 우세해지는 추세이다(사진 9).



[사진 9] Drag Fashion.

2) 남성 언더웨어와 페티시즘

남성의 언더웨어는 여성의 것과 같은 에로틱한 의미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록 남성용 언더웨어를 페티시화하는 것이 게이들의 하위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해도 남성의 육체는 거의 성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언더웨어는 색상이나 재질, 스타일에 있어서는 다양하기는 해도 여성용 언더웨어의 폭넓은 변화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볼때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주로 언더팬츠(underpants)와 언더셔츠(undershirts)로 대별되는 비교적 단순한 경향을 보여왔다. 더우기 남성은 평범한 백색의 면티셔츠와 브리프만으로도 충분히 에로틱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었다. 예로써, 백색 면언더셔츠는 1930년대 초 게이들의 중요한 표식이었다. 매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의 복식담당 큐레이터인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남성의 언더셔츠가 어떻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페티시 의상이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언더셔츠의 노출이 노동계급의 남성은 연상시키며 특히 남성의 상체 근육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언더셔츠가 곧 '남성성'이라는 의미와 상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이미 1950년대에 백색 언더셔츠 차림의 말론브란도의 이미지가 이성애(異性愛, heterosex)의 섹스어필한 매력을 대중화시키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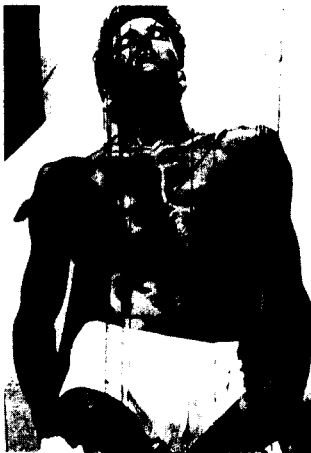


[사진 10] 영화 “이유없는 반항 (Rebel without a cause)”에서 James Dean의 백색의 언더셔츠. <Warner Brothers Pictures (1955)>

을 했다(사진 10). 대체로 언더웨어로 가리는 양이 적을수록 성적매력이나 호소력은 커진다. 권투선수들의 언더팬츠는 짧은 팬츠보다 더 느슨하고 더 많은 부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권투선수는 보수적이고 에로틱하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남성용 비키니 브리프의 개발은 ‘에로틱한’ 남성의 팬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비키니(bikini)’는 최소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성기보호대(cache-sexe)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성에게 있어서 비키니는 ‘성기로의 시선집중’이라는 역할도 하는데 성기로의 시선집중이란 점에서는 1930년대 동성애자들의 중요한 페티시 의상 중 하나인 타이트한 블루진의 역할과도 유사하다. 또, 성기팽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잭스트랩은 검정색, 하얀색, 빨강색, 분홍색, 노란색, 연한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유행했다²⁷⁾. 다양하고 에로틱한 남성용 언더웨어 스타일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등장했다. “투명한 브리프, 킨키 브리프(kinky brief), 부드러운 가죽 브리프 또 성적인 자극이나 흥분을 제공하는 고무나 PVC로 된 언더웨어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소재들로 만들어진 언더웨어들이 있다.”고 베네트-잉글랜드(Rodney Bennett-England)는 언급했다²⁸⁾. 1970년대 ‘자키’ 같은 언더웨어 제조업체들까지도 남성 언더웨어의 에로틱한 매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드디어 켈빈클라인은 여태까지의 언더웨어와는 전혀 다른 남여 공용의 파격적인 언더웨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와이프론트(Y-fronts)’, ‘박서쇼츠(boxer-shorts)’ 그리고 ‘소년의 조끼형태’의 언더웨어였다. 이것은 남성성이 약화된 현재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과 한편으로는, 안드로지니를 겨냥한 판매전략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되어진다. 또, 안드로지니는 사회적, 정신적 성차별 구조 하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상대적 위축감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던 프로이드 학파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²⁹⁾. 그러나 처음에 주요 신문들은 켈빈클라인이 남성 스타일의 언더웨어를 여성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타임』지는 마치 국부 가리개와 같이 생긴 끈으로 된 비키니 팬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켈빈클라인은

성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반면, '박서'의 험령하고 멋없는 셔츠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심한 스타일 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스타일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우먼스테일리(Women's Wear Daily)』지는 "비키니 브리프 이래로 여성용 란제리에서 가장 화끈한 볼거리"라고 Klein의 남성 스타일의 여성용 언더웨어에 대하여 평했다²⁹⁾.

한편, 미국사회내의 청교도주의(Puritanism)와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은 남성의 성적 미의 강조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사진작가 브루스 웨버(Blus Weber)가 제작한 언더웨어만을 입은 남성 사진을 안드로지너스한 언더웨어 차림의 여성 사진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보았다. 1982년 초 웨버와 클라인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에로틱한 남성 언더웨어 광고를 공동 제작하였다. 그것은 자극적으로 부푼 하얀 팬츠를 입은 반나체의 건장한 남성의 상체(torso)였는데³⁰⁾, 이때 클라인은 팬츠 속에 '공'을 넣었다고 전해진다(사진 11). 그로부터 10년후,



[사진 11] Calvin Klein의 언더웨어 광고 게시판, 1982.
<Steele(1996)>

이미 젊은 도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바지를 늘어지게 내려 입고 팬츠의 허리끈을 보이는 패션이 유행하였다. 이제 이러한 스타일은 사넬의 여성복 패션 쇼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디자이너 언더팬츠' 스타일의 의상들이 하이

패션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용 언더웨어가 하나의 패션으로서의 등장하게 된 것은 두가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하나는, 남성들의 역할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금기(sexual taboos)가 점차적으로 붕괴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남근 노출에 대한 강한 금기가 남아 있는 한편 언더웨어만 입은 상태는 남성의 완전한 전라(全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의 '스타일 요소(style factor)'가 존재하게 된다. 즉, 패션은 점차로 보디 컨셔스(Body conscious) 스타일로 변화되어 가고있으며 언더웨어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 어떤 옷보다도 밀접하게 육체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렇다고 언더웨어 스타일 그 자체가 모두 언더웨어 페티시즘의 증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남성들의 페티시의 초점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신체 그 자체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죽, 고무 그리고 유니폼 페티시스트보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종종 언더팬츠 페티시스트들은 페니스 페티시즘(penis fetishism)의 보조물로서 팬티를 선호한다.

언더웨어는 오랫동안 비밀스럽고 성적인 옷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즉, 여성의 언더웨어 자체가 하나의 '에로틱한 유혹(erotic allur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차츰 언더웨어의 의미가 변해가고 있다. 스트립쇼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던 언더웨어가 이제는 디오르같은 보수적인 꾸뛰르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Thierry Muglar와 J. P. Gaultier같은 선구적인 디자이너들은 금속, 가죽 그리고 라텍스를 소재로 한 언더웨어 패션을 이룩했다. 그러나, 최근 가장 키크한 언더웨어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과 페티시즘에서 등장했던 인조모피 팬티(fake-fur panties)이다(사진 12). 이렇듯 20세기 말에는 언더웨어가 파티복이나 일상복으로 디자인되어 공공장소에서도 입혀질 뿐 아니라 소프트 페티시로서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언더웨어 패션은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만 했던 전통적인 금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언더웨어 페티시즘을 단지 세기말 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1910



[사진 12] Vivienne Westwood의 인조모피 팬티.
<Vivienne Westwood Collection, 1994>

년 이후 패션은 드라마틱하게 변해왔으며, 과거 여성용 언더웨어류의 비단소리의 은밀함과 신비스러움은 오늘날 단지 '언더웨어류(undies)'라는 가벼운 개념으로 변화해가는 경향이 있다. 비록 과거의 '바스락거리는' 페티코트의 신비한 소리가 육체의 노출과 '감미롭고' 노골적인 성욕의 표출로 대치된 현대에 와서도 언더웨어 페티시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역시 언더웨어는 '신체와 가장 친근한 패션(intimate body fashion)'이며 생식기를 가리는 동시에 시선을 집중시킨다²¹⁾.

III. 결론

1. 언더웨어는 겉옷과 신체보호라는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목적에서 일부 귀족층에서 착용되다가 근대 이후 비로소 인체와 가장 친근한 의상으로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언더웨어는 주로 신체보정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종종 골조의 만곡을 초래하기도 했고 재질과 공정에서 그 정교함을 더해갔으며 귀부인의 품위와 유행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반면에 남성의 언더웨어는 기능성을 우선의 목적으로 해왔고 신체의 자연곡선을 왜곡시키지 않고 따랐으

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남녀의 언더웨어는 의학적, 위생적, 사회적 측면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2. 언더웨어는 옷을 벗은 동시에 입고 있는 매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언더웨어에 의한 신체의 노출과 은폐는 에로티시즘이나 페티시즘과 관련이 깊다. 특히, 여성의 언더웨어는 '성적 매력'이나 '에로틱한 유혹(erotic allure)'의 수단으로서 '성적 환상(sex fantasies)'를 유발시키는 심리적, 물리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여성의 육체가 성적 의미로 해석되었던 이유 때문에 여성의 언더웨어는 성과 부합되었던 반면, 남성의 언더웨어는 여성의 것과 같은 에로틱한 의미는 거의 주지 않았다.

3. 언더팬츠는 크로스드레싱의 에로틱한 의미를 가지고 소수 하류층 여성들에게 착용되었을 뿐 일반에게는 거부되다가 19세기에 들어와 일부 귀족여성들이 정숙과 보은 그리고 위생의 이유로써 착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하향전과되었다. 페티시스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언더팬츠는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 중 하나이며 이때 여성의 언더팬츠는 육체적, 감성적인 측면과 상징적으로 부합된다.

4. 남성의 언더웨어는 여성의 언더웨어에 비하여 단순하고 보수적인 상하복 형태를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남성의 언더웨어는 섹스어필한 남성매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점차로 페티시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성적인 금기(sexual taboo)가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이와같이 언더웨어의 아웃웨어화 그리고 언더웨어의 안드로지니 경향 뿐 아니라 최근의 언더웨어와 아웃웨어의 혼용현상은 패셔너블한 의상의 미적 요소 중 하나가 되어 현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문헌

1. Alison Carter, Underwear: The Fashion History(New York : Drama Books, 1992), p. 15
2. Elaine Benson and John Easten, Unmentionable,

-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p. 91.
3. 세실 생 로랑(Cecil ST. Laurent)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나체로 감을 잤다고 주장했다.
 4. Anne Buck, "Foundations of the Active Woman", in *La Belle Epoche : Costume, 1890~1914*, ed. Ann Saunders(London : Costume Society, 1968), p. 43.
 5. Emile Zola, *Au bonheur des dames*(1883 : Paris : Livre de Poche, n.d.), p. 478.
 6. Quoted in Gertrude Aretz, *The Elegant Woman from the Rococo Period to Modern Times*, trans. James Laver (London : Harrap, 1932), p. 273.
 7. *Lady' Realm*, April 1903 : Mrs. Eric Pritchard, *The Cult of Chiffon* (London : Grant Richard, 1902), quoted in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 Idea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Jazz Age*(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195.
 8. Comtesse de Tramar, *La Br viare de la femme* (Paris : Havard,1903), quoted in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p. 207.
 9. Magnus Hirshfeld, *Sexual Anomalies and Perversions :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London : Encyclopaedic Press, 1962), p. 578.
 10. *Modern Society*, October 31, 1903, p. 1648.
 11. Magnus Hirshfeld, *Transvestites : The Erotic Drive to Cross Dress*, trans. Michael Lombardi—Nash (Buffalo : Prometheus Book, 1991), p. 63.
 12. 서독 작센 지방의 소도시
 13. Elaine Benson and John Easten, *Unmentionable*, p. 25.
 14. *Le Sport*(1873), quoted in Romi, *Histoire pittoresque du pantalon feminine*(Paris : Jacques Grancher, 1979), p. 68.
 15. René Maizeroy, *L' Adore* (1887), quoted in Romi, *Histoire pettoresque du pantalon féminin*(Paris : Jacques Grancher,1979), p. 68.
 16. Dianne Kendall, private communication April 29, 1993.
 17. Carter, Alison. *Underwear : The Fashion History*, (London : B.T. Batsford Ltd), 1992, pp. 44-46
 18. "Undercover News", in Carlson Wade, *Panty Raid and Other Stories of Transvestism and Female Impersonation*(New York : Selbee, 1963).
 19. Richard von Krafft-Ebing, *Psychopathia Sexualis with Especial Reference to the Antipathic Sexual Instinct : A Medico Forensic Study*, trans. F. J. Rebman(1886 : New York : Physicians and Surgeons Book Company, 1906, 1934), pp. 250-251.
 20. Robert Stoller, *Perversion : The Erotic Form of Hatred*(New York : Pantheon Books, 1975), p. 81.
 21. Stekel, *Sexual Aberrations*, vol. 1, p. 100.
 22. jockstrap : 남성 운동선수용 국부싸포터.
 23. 미국의 대통령판매 회사, 본사는 Chicago에 있다.
 24. union suits : 아래 위가 달린 언더웨어, 영국에서는 combinations 이라고 한다.
 25. Richard Martin, "Idology and Identity : The Homo and Homospectorial Look in Menswear Limangery and George Platt Lynes' Photoygraph of Carl Carlson"(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stume Society of America, Montreal, May 1994).
 26. Miscellaneous catalogues and advertisements, Kinsey Institute.
 27. Rodney Bennett—England, *Dress Optional : The Revolution in Menswear*(London : Peter Owen, 1967), pp. 44-45.
 28. Rodney Bennett—England, *Ibid*, p. 57.
 29. Valerie Steele, "Clothing and Sexuality," in *Men and Women : Dressing the Part*, ed. Claudia Kidwell and Valerie Steele(Washington, D.C. :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9), pp. 56-57.
 30. Valerie Steele, "Calvinism Unclothed", *Design Quarterly*, Fall 1992, p. 32.
 31. Dan Shaw, "Unmentionable? No More," *New York Times*, August 14, 1994, pp. 49, 52.
 32. Chris Gosselin and Glen Wilson, "Fetishism, Sadomasochism, and Related Behaviours," in *The Psychology of Sexual Diversity*, ed. Kevin Howells(Oxford : Blackwell, 1984), p. 98.